

현대패션에서 하이테크 소재의 경향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 1990년대를 중심으로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박사과정 박은경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의상학과 교수 이재정

· 목 차 ·

- I. 서론
- II. 하이테크 소재의 개념과 발전 배경
- III. 1990년대 패션 소재의 경향
- IV. 1990년대 하이테크 소재의 특징
- V. 결론

<요 약>

1990년대 패션은 장르의 파괴, 퓨전이라는 개념 아래 다양한 양면성을 가진 하이브리드(hybrid) 현상으로 진전되었다. 패션 소재는 기술적 혁신에 힘입어 급진적인 발전과 다양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특히 부드러움과 유동성(soft & drape)의 조직효과와 표면효과가 중요시되면서 다양한 하이테크 소재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 하이테크 소재는 다양한 신기술이 첨가되면서 패션에 새로운 미래적인 기능성과 고감성을 부여한 소재를 의미한다. 또한 90년대 나타난 하이테크 소재의 경향은 디자인의 한계성을 인식하지 않고 다양한 디자이너의 영감으로 발전되어 스타일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하이테크 소재의 개념을 4가지로 분석한 결과, 합성을 통한 물성 변형으로써의 하이테크, 새로운 섬유 개발로 이룩된 신소재 개념의 하이테크, 신가공 기술에 의한 하이테크, 넌우븐(non-woven) 개념으로 진보적 성향을 표현하는 하이테크 소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된 90년대 하이테크의 경향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Wearable Technology)로 발전되어 기본적인 스타일을 창조하거나 대중성을 인정받아 새로운 기본 소재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간편함과 편리성은 하이테크

크 소재의 기본 가치로 인정받아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상시켰으며, 21세기에 가장 발전적인 소재 군으로 주목되고 있다.

I. 서론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패션은 감각산업으로 대두되었고 소재는 외형을 변화시키는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는 스타일링의 한 방법임과 동시에 미래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서 패션은 장르의 파괴라는 개념 그리고 퓨전이라는 개념 아래 다양한 패션 소재가 등장하였고, 심미적·조형적 스타일의 강조뿐만이 아니라 소재 자체의 기능적 측면을 보완하며 새로운 감각의 스타일링을 구축하였다.

산업 혁명 이후 의류 소재 생산이 근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의복 재료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고, 20세기 초 재생 섬유인 레이온과 나일론의 합성섬유 발명에 뒤이은 제 2차 대전 이후 화학섬유의 대량생산은 새로운 의복 문화에 혁신을 가져왔다. 60년대 이후 다양한 합성 섬유의 발달은 새로운 소재에 의한 조형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스타일은 새롭게 개발된 소재의 사용으로 실루엣보다는 소재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기능적인 측면과 소재의 색다른 양상을 표현하는 조형의 한 부분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복식의 개념에 이용되지 않았던 넉우븐을 의복재료로 사용하여 새로운 하이테크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80년대 이후에 전개된 소재의 방향은 새롭게 개발된 첨단소재의 기능성과 다양성을 디자인에 표현하려는 시도가 많아지면서 이제 소재의 기능은 단순히 의복 재료라는 기능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복식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하이테크 소재에 대한 선행 연구는 패션디자인 소재로 접근한 이효진(1997), 테크노 소재를 다룬 양혜정(1999), 신소재 연구의 강현영(1999) 연구 등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90년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소재 개발과 다양한 가공 기술로 이룩한 하이테크 소재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이테크 소재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90년대 패션에 적용된 사례를 통해 차세대 패션 소재의 스타일링 이미지를 예측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디자이너의 컬렉션과 소재관련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Textile View』, 『Viewpoint』 등의 소재 전문 잡지와 삼성패션연구소, 인터패션플래닝, 페클러(Pecler), 넬리 로디(Nelly Rodi) 등 트렌드 정보회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II. 하이테크 소재의 개념과 발전 배경

1. 하이테크 소재의 정의

하이테크(High-tech) 소재란 신소재(New Fabric)를 일컫는 말로 신합성 섬유(New Synthetic Fiber)가 종래의 섬유가 갖지 않은 독특한 질감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섬유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신소재란 섬유산업의 발달로 인해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기존의 직물과 차별화되는 고유의 독특하고 새로운 특성을 가진 차세대의 섬유라고 정의하고 있다.¹⁾ 신소재는 기존의 섬유에서 한 단계 발달된 고질감, 고감성, 고기능성을 지니고 있는 모든 섬유를 지칭하기도 한다.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신기술에 의해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첨가되면서 패션에 새로운 미래적인 기능성과 환상을 창조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섬유’라는 용어는 1980년대 중반부터 대중적으로 수용되어져 왔다.²⁾ 이러한 하이테크 소재는 강하고 영구적이며, 거의 제2의 피부와 같이 아주 가볍고, 탄력성이 좋으며, 빛에 의한 반사 성질이 있거나 온도 유지 기능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³⁾ 하이테크의 의미 자체가 60년대에는 년우븐을 포함하는 재료적 측면에서의 의미로 불리어 왔으나 80년대 이후 하이테크 섬유가 대중적으로 수용되면서 복합소재 또는 신가공 기술에 의한 소재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에 사용된 하이테크 소재란 미래지향적 측면에서의 신소재 개념을 빌려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이테크 소재의 또 다른 특징은 섬유에 다양한 후가공 효과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광택효과 소재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림1>처럼 라미네이트(laminate) 가공의 경우 의복 표면의 광택가공을 통해 자연광택과는 다른 기계미와 인공미를 표출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비닐이나 비닐 코팅 소재와 고무 재질의 소재, 네오프렌(neoprene)과 같은 테크노(techno) 소재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 소재는 라텍스(latex)의 개발에 의해 60년대부터 하이패션뿐만 아니라 스트리트 패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었다.⁴⁾

퀼팅(quilting), 본딩(bonding)이나 와딩(wadding) 등의 이중 소재들은 보호성을 강조한 패션 스타일을 중심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부각되고 있다. <그림 2, 3> 특히 최근의 소재 동향은 더블페이스(double-faced), 샌드위치(sandwich) 등과 같은 본딩(bonding)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본딩 가공법은 세탁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실루엣을 멋있게 만든다든지, 구김 방지성을 부여한다든지, 워시 앤 웨어(wash & wear)성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기능성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본딩을 통한 직물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⁵⁾ 이러한 본딩은 폴리우레탄(polyurethane)이나 폼

1) 강현영,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소재 동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8

2) Susannah Handley, *Nylon: The Manmade Fashion Revolution*, London: Bloomsbury, 1999, p.139

3) 양혜정, “20세기 패션에 표현된 퓨처리즘과 그 응용”,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25

4) 정정미,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48

5) 공석봉, 「소재를 알면 디자인이 보인다」, 섬유기술사, 2001, p.39

백(formback)을 넣은 샌드위치 소재로, 혹은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닌 소재와의 본딩을 통하여 표면과 내면의 기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물성을 가진 직물로 표현되어 색다른 조형미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신소재의 탄생 배경에는 신합성 섬유와 다양한 발전이 선행되었다.



<그림 1> 라미네이트
Sportmax, 1999
Gap Collection



<그림 2> 본딩소재
Marni, 1999
Gap Collection



<그림 3> 와딩소재
Jil Sander, 1999
Gap Collection

2. 하이테크 소재의 발전 배경

현대패션에서 하이테크 소재의 등장은 1960년대 우주시대(Space Age)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패션 문화를 창출하였다. 패션에서 우주적 이미지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미래와 새로운 세계, 그리고 고도의 테크놀로지 등을 상징하며 환상과 첨단과학이 공존하는 세계를 의미한다.⁶⁾ 이는 또한 전 시대의 화려한 장식성이나 구축적인 조형성에서 벗어나 단순화된 형태의 다양한 새로운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전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패션에서 미래주의란 테크놀로지 자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테크놀로지를 인간중심의 사고와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미래주의에서는 인간의 ‘편안함’, ‘쾌적함’ 즉 활동성과 기능성을 살린 디자인이 부각되고 이를 밑바탕으로 하는 소재의 중요성이 대두된다.⁷⁾

활동성이 부각됨에 따라 디자인은 단순해졌고 실루엣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조형감각을 표현했다. 예컨대, 1960년대에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패션으로 직선적·기하학적인 선이나 확실한 재단방법 등으로 경쾌한 라인을 구축하였다. 또한 60년대의 디자인은 실루엣의 변화보다는 변화 있는 소재, 참신한 색상, 대담한 형식 등 소재가 갖는 신선함을 강하게 인식함으로써 비닐, 코팅 가죽, 부직포, 등의 여러 가지 재료가 의상 소재로 등장하게 되었다.

하이테크 소재의 등장은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기능주의적 패션을 확산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6) 임은안, “현대 스포츠패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28

7) 오현주, “1960년대 패션의 조형미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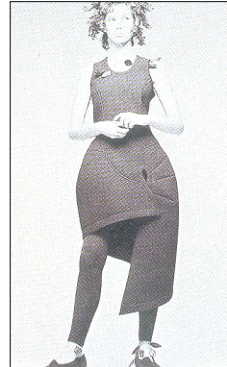
모던한 스타일의 표현으로 당대의 젊은이들에게 각광받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 또한 60년대 영문화를 중심으로 표현되었던 다양한 넌우븐의 사용 또한 하이테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디자이너들이 표현하려했던 다양한 소재의 이미지와 그들의 노력은 의상이 직물을 소재로 몸에 맞게 재단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과거의 관념을 무시한 소재와 의상이 인체를 통해 표현됨으로써 미적 충동을 유발시키고 생동감을 부여⁸⁾하는 하나의 표현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림 4> 비닐소재
Betsey Johnson, 1966



<그림 5> 메탈소재
Paco Rabanne, 1966



<그림 6> 우레탄본딩
Comme des Garçons, 1986

신기술과 접목된 소재는 80년대 전자산업의 발달과 고도의 과학 기술을 주축으로 새로운 메카니즘을 불러일으켰다. 과거 60년대 대량주의와 공업화의 바람은 80년대에 인간의 감성을 중요시하는 하이 터치(High touch) 스타일을 새롭게 부각시켰다.⁹⁾ 즉 합리적이며 모던한 디자인에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이테크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천연지향의 가치가 인간 본연의 따뜻한 감성과 결부되어진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일본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다양한 하이테크의 변화가 모색되어졌다. 수잔나 핸레이(Susannah Handley)는 특히 80년대 일본의 대표 디자이너인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콤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 등이 현대적인 이미지로써의 하이테크의 전형을 이룬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각각 그들만의 텍스타일 디렉터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일에 맞는 소재의 다양성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그들만의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컬렉션을 발표하여 유럽시장에 알맞은 시도가 가능했다고 전하고 있다.¹⁰⁾ 실제로 신합섬(New Synthetic)이란 1987년부터 일본의 합성섬유 회사들이 기존의 합성섬유로 표현할 수 없었던 실크와 같은 촉감, 소모제품과 같은 촉감, 복숭아 껍질

8) 이효진, “현대 패션 디자인 소재에 표현된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2권 (1997. 5), p.164

9) 엄혜정,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텍스타일의 경향과 특징에 관한 연구”, 복식, 41권 (1998, 11), p.120

10) Susannah Handley, 앞의 책, p.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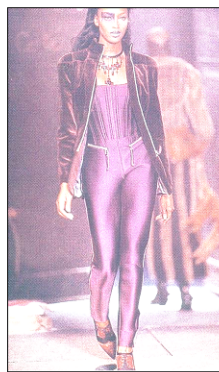
(peach skin)과 같은 촉감, 레이온과 같은 촉감 등 새로운 합성섬유를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중심으로 탄생시키면서 이것을 신고센(Shingosen)이라고 명명하는데서 기인한다.¹¹⁾ 이러한 실험의 새로운 기술 개발은 더욱 발전되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결합을 통하여 천연이나 합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물성을 만들어 내는 고도의 복합적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창의적인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는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는 새로운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텍스타일 산업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 디자이너이기도 하다. 본딩 코튼, 레이온과 폴리우레탄의 합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작용을 통해 보여진 데보레(devore) 효과, 플로킹(flocking), 엠보싱(embossing) 질감이나 헤어진 듯한 처리의 울(frayed wool) 등의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스타일은 90년대 초반부에 주요한 패션 트렌드로 표현되었다.¹²⁾ 또한 마이크로 화이버(micro fiber)의 등장은 1990년대 텍스타일 산업에 새로운 신기류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였다.¹³⁾

새로운 신소재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항상 새로운 섬유와 소재를 사용한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실험정신은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무한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는 네오프렌으로 캣수트(cat suit)를 만들거나 러버, 비닐, PVC 등으로 에로틱한 하이패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¹⁴⁾ 그 후 여러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는 하이테크 소재를 사용한 패션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주요한 패션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향상된 소재들은 부드러움과 유동성의 특별한 감성을 부여하거나 편안함이라는 심미적 기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용한 상품적 가치를 지닌 패션의 한 부분으로서 새로운 패션의 중요한 가치로 변모되었다.



<그림 7>
메탈릭 엠보싱, Prada,
1992 Gap Collection



<그림 8>
네오프렌 캣수트
J.P.Gaultier, 1988



<그림 9>
반투명비닐 J.Galliano,
1999 Gap Collection



<그림 10>
스트레치 러버 Stephen
Fuller, 1996

11) 공석봉, 앞의 책, p.37.

12) Susannah Handley, 앞의 책, p.134.

13) 조경희, "Stretch Aesthetics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복식, 46권 (1999, 8), p.70.

14) Susannah Handley, 앞의 책, p.158.

III. 1990년대 패션 소재의 경향

1990년대 전반적인 소재의 경향은 테크놀러지를 기반으로 한 심미적, 인간공학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그 의미에 부합하는 디자인이나 형상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90년대 전반기는 80년대의 에콜로지의 영향으로 과거 지향, 자연 지향으로의 감성을 부각시킨 소재군이 각광을 받아 가공하지 않은 듯한 자연적인 질감을 중요시하는 유희성의 천연 소재가 유행하였다.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소재는 미니멀리즘의 영향과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테크니컬 소재의 합성 소재들이 주목받았다. 또한 라이크라의 표현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실루엣을 창출하였고, 란제리, 시스루, 글래머의 표현은 이너웨어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터치감과 실키(silky)한 감성 소재로 전개되었다.¹⁵⁾

90년대 후반에는 일상 복식에 기능성과 활동성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면서 스포츠웨어에 제시되었던 장식의 절제와 구조적 단순성에 기초한 기능성을 패션 스타일의 일부로 도입하였다. 액티브웨어의 아이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스포츠웨어용 소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하이테크의 소재의 대중화를 이루었다. 디자이너들 또한 스포츠 라인의 세컨드 브랜드를 통해 첨단 소재를 이용한 디자인을 발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세기말에는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로 이한 미래주의 패션 이미지가 등장하였다. 소재로는 신합성적인 요소를 포함한 유연하고 가볍고, 매끄러운 촉감, 광택 가공 등이 효과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스킨 터치(skin touch) 감각의 소재는 가볍고 베이직한 룩을 창조하는데 이용되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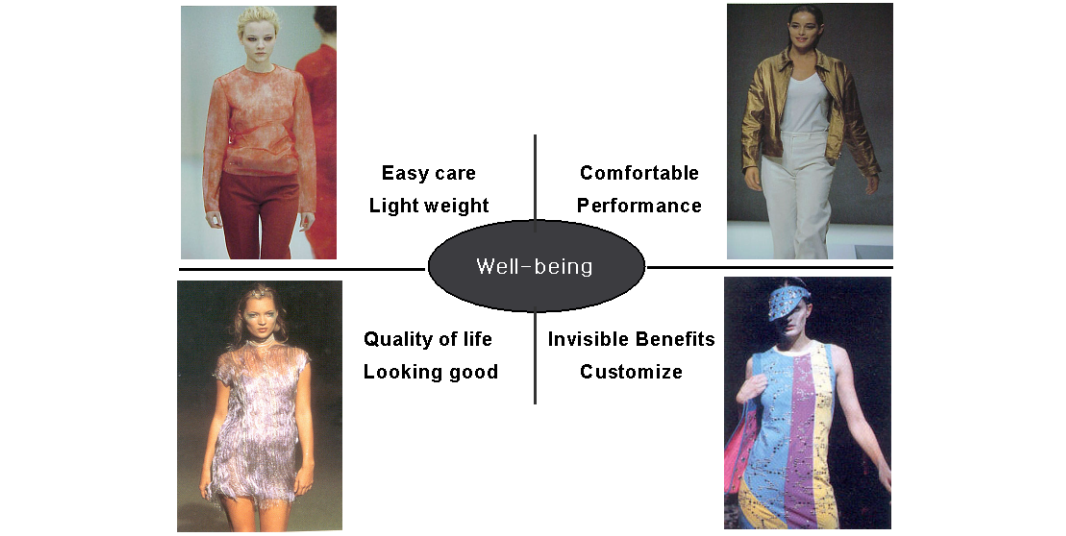
<표 1> 1990년대 주요 패션 테마와 소재의 특징¹⁷⁾

시기	주요 패션 테마	소재의 특징
1991 1992	New Ecology Orientalism Chic Basic	표면효과를 중시한 메탈릭 가공 소재 오리엔탈리즘 영향을 받은 천연소재같은 외관과 재질감 에콜로지 영향의 다양한 텍스춰
1993 1994	Basic Traditional Classicism Naturalism	그런지 효과, 후가공을 중심으로 한 멀티코팅 효과 기능성을 중시한 스트레치 소재의 대중화 간결한 외관과 질감의 새로운 클래식 소재군
1995 1996	Retro Nostalgia New Feminine Minimalism	페미닌룩 영향의 이너웨어같은 느낌의 소재 란제리, 시스루 룩을 위한 가공, 조직, 터치감 변화가 중심 다양한 테크니컬 이중적 소재
1997 1998	Modern Elegance Genderless Ethnic	에콜로지와 테크놀로지의 조화 바이오 클린(Bio-clean)의 신합성 소재 천연보다는 합성의 광택감, 매끈하고 이지한 소재 효과
1999 2000	Avant-garde New Bourgeois Fusion	다양한 외관을 창출하는 후가공 소재 기능성 소재의 고급화 및 수공예적 느낌의 소재 이질적인 소재 혹은 질감과의 믹스 앤 매치

15) 이경희, “여성 패션트렌드 분석을 통한 감성 지표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p.29-45

16) 강현영, 앞의 책, p.51.

〈표 2〉 1990년대 소재의 트렌드 방향



90년대 소재의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인간의 감각을 충족시키는 ‘웰빙(well-being)’의 개념과 접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스타일 추구보다 소재의 트렌드적 감성이 선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지케어(easy care)와 가벼움을 축으로 하는 고질감 소재군, 편안함과 활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고기능성 소재군, 소재 질감과 매끈한 외관을 강조하는 고감성 소재군과 직조시 혹은 후가공을 통해 보이지 않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21세기에 가장 요구되는 신체를 위한 유비쿼터스적인 소재군 등이 특징으로 등장하였다.¹⁷⁾

이러한 소재의 커다란 흐름은 21세기에도 가장 요구되는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특히 웰빙을 향한 라이프스타일의 추구는 점점 더 하이테크적인 감수성의 표현을 소재에 담아 표현하는 적극적인 방법과 스타일의 구현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IV. 1990년대 하이테크 소재의 특징

1990년대 다양한 신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디자인 발상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은 가볍고 편안하고 활동적인 기능성 소재와 심미적으로도 완성된 가치를 가진 퀄리티 지향, 그리고 개인적

17) 1991-2000년까지 발간된 삼성패션연구소, 인터패션플래닝, 페클러, 빌리로디 등 총 4개사의 트렌드 정보지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임.

18) Linda Foster, “Going techno”, *Textile View*, 2000, no.49, pp.13-14.

인 취향이나 선호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는 소재의 경향이 주요 트렌드로 부각되었다. 또한 하이테크 소재의 경향은 디자인의 한계성을 인식하지 않고 다양한 디자이너의 영감으로 발전해 왔다. 디자이너에게서 하이테크의 개념이란 소재로 표현되는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했으며 몇몇 급진적인 디자이너들은 미래주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과거에 비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여유롭게 표현되고 있으며, 특히 고도의 가공기술로 더욱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신소재들이 모든 패션 소재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볍고 편안한 기능성 소재가 주요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으며, 오늘날 하이테크의 특성으로 양면사용이 가능하고, 가볍고, 보호적이고, 유동적이고, 방수 등의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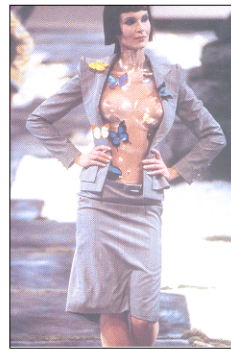
이렇듯 90년대 하이테크 개념의 특징은 한가지의 물성보다는 다양한 효과와 다른 소재의 믹스를 통한 퓨전 개념으로 발전되면서 새로운 소재 개발에 따른 디자인의 효과와 스타일이 더욱 명백한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세기말에 전개된 하이테크 소재의 방향은 90년대에 요구되는 중요한 정신적 가치를 중심으로 잘 맞는 착용감, 좋은 느낌, 멋진 외관(perform well, feel good, look beautiful)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²⁰⁾



<그림 11> McQueen, 1998
Vogue(F), 1998, 9월호



<그림 12> Chalayan, 1998
Gap Collection



<그림 13> Givenchy, 1998
Gap Collection

<그림 11>은 ‘울트라 센시블(ultra sensible)’이라는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온도 감응반응 소재로 만든 지방시(Givenchy)의 베스트 디자인이며, <그림 12>는 후세인 샬리안(Hussein Chalayan)의 섬유유리(fiberglass) 소재의 원피스 디자인, <그림 13>은 지방시의 러버의 일종인 퍼스펙스(perspex)를 사용한 코르셋 디자인 등으로 혁신적인 이미지를 시도하였다.

소재 기술의 향상은 의복의 외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90년대 하이테크 소재가 가볍고, 작고, 강하며, 생산이 수월하고, 가격이 저렴한 특징들을 지니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 즉, 단순성, 순수성, 편안함을 강조하며 릴렉스 룩(Relax Look)을 표현하려는 디자이너들

19) 공석봉, 앞의 책, p.39.

20) Linda Foster, 앞의 글, pp.13~14.

에게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²¹⁾

90년대 패션의 특징 중 소재의 단순성은 하이테크로 표현하거나 재질감을 강조하기 위한 독창적인 조형미를 창조하는 추세를 보였다. 진보적인 디자이너들은 반사소재, 홀로그램(hologram), 필름지(film), 메탈(metal), 플라스틱 우븐(plastic woven) 등의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여 외관을 창조하였다. 90년대 중반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프라다(Prada)의 경우, 하이테크 소재의 다양한 적용과 이미지로 참신함을 표현하였다.²²⁾ 아직까지 이러한 실험적인 하이테크 소재의 사용은 미미하게 간주되고 있으나 디자이너들이 하이테크 사용에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감에 따라 스타일을 창조하는 디자이너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방법의 의복문화가 제시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90년대의 하이테크 소재의 경향을 중심으로 패션에 주로 표현된 네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1) 합성을 통한 물성 변형으로서의 하이테크

테크놀러지와 자연적 요소와의 결합은 새로운 이미지로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는데, 다양한 복합소재의 합성을 이용하여 소재의 재질을 변형시키는 획기적인 소재에 대한 관심은 소재의 물성뿐만 아니라 외형이나 재질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재질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소재의 하이테크화는 천연과 합성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새로운 감각의 소재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기능적이고 실용성의 강조로 소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한편 천연소재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발전적 형태라 할 수 있다. 물성 변형의 대표적인 예는 본딩, 폴리우레탄이나 폼백을 넣은 샌드위치 소재 등이 있는데 본딩은 보호성을 중심으로 스폰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혹은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닌 소재와의 본딩을 통하여 표면과 내면의 기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물성을 가진 직물로 표현되어 색다른 조형미를 창출하고 있다.

(2) 새로운 섬유 개발로 이룩된 신소재 개념의 하이테크

질 샌더(Jil Sander), 톰 포드(Tom Ford)의 구찌(Gucci),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등은 대표적으로 스포츠웨어에서나 사용되었던 외플 구조의 쿨 맥스 매쉬(cool max mesh)를 하이패션에 응용하여 새로운 실용미학을 전개시킨 디자이너이다. 또한 디자이너들은 라텍스나 마이크로 화이버를 사용하여 미니멀한 외관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하이테크 소재를 디자인에 융화시켜 표현하였다.²³⁾

탁텔(tactel), 텐셀(tencel), 아미카(amica) 등의 환경친화적 소재와 퍼스펙스, 종이 등의 기능성, 보호성, 심미성이 함께 표현된 소재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인간의 감수성을 충족시켜주는 인텔리전트 화이버(intelligent fiber)의 개발²⁴⁾로 더욱 신소재의 개념은 확대된다

21) 조경희, 앞의 글, p.70.

22) Gerda Buxbaum ed.,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Prestel, 1999, p.161.

23) Susannah Handley, 앞의 책, p.139.

24) 윗글, p.140.

고 할 수 있다.

(3) 신가공 기술에 의한 하이테크

후가공(finishing)은 진보된 기술력의 면모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또한 소재가 지녀야 할 감성, 즉 터치감을 중심으로 시각과 완벽한 감촉을 충족시키고 있다.

90년대 들어와서 질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는데 미야케의 플리즈 플리즈(Pleats Please) 라인의 성공에 힘입어 입체감 있는 표면효과와 다양한 후가공이 개발되었다. 텍스처 효과는 엠보싱, 플리즈(pleats), 크리즈(crease), 크링클(crinkle) 등 가공 기술의 향상으로 의복의 외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90년대의 대표적인 패션 스타일에서 나타나듯 소재의 단순성은 하이테크로 표현하거나 재질감을 강조하기 위한 독창적인 조형미를 창출하는 추세를 보였다.²⁵⁾ 또한 직물의 표면효과를 위한 라미네이트, 홀로그래픽, 비닐 코팅, 왁스 코팅, 펄 코팅 등의 후가공 처리를 들 수 있다.

(4) 년우분 개념으로 진보적 성향을 표현하는 하이테크

비닐(vinyl), 타이벡(tybek), 러버(rubber), 호일(foil),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 등은 기술을 이용한 소재의 재창조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관점이다. 전혀 다른 외관과 색다른 재료의 사용은 소재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데, 특히 살라얀과 맥퀸 등은 첨단 하이테크 소재의 다각적인 사용으로 복식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였다.

<표 3> 하이테크 소재의 주요 특징

			
Atsuro Tayama 1999 본딩 소재 (합성을 통한 변형)	Alberto Biani 1998 라텍스 소재 (새로운 섬유 개발)	Owen Gaster 1996 홀로그램 소재 (새로운 후가공 기법)	Hussein Chalayan 1998 금박 타이벡 소재 (년우분 소재)

25) Sarah E. Braddock & Marie O'Mahony, *Techno Textiles: Revolutionary Fabrics for Fashion and Design*, London: Thames & Hudson, 1998, p.117.

60년대 종이로 만든 의복은 실험적인 의도가 엿보였지만 90년대에는 다양한 후가공 처리와 질감을 특징으로 한 패션 소재로 대두되었다. 현재 타이벡이나 일본의 화지는 일회성이 아닌 디자인 재료로 환경친화적인 면모도 갖추고 있어서 곧 대중적인 소재로 일반화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실험적인 하이테크 소재의 사용은 미미하게 간주되고 있으나 디자이너들이 하이테크 사용에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감에 따라 스타일을 창조하는 디자이너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방법의 의복문화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90년대 하이테크 소재의 특징은 인간의 라이프스타일과 접목된 웰빙 개념을 이미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와 육체적 자유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새로운 스타일과 이미지를 재발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패션 소재는 패션 산업의 기본으로 아름다운 스타일을 창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라는 점 외에 패션 산업의 새로운 창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발로임에는 틀림없다. 새로운 소재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합성 메이커들은 여러 가지 분야와 요소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과 감성을 갖는 소재를 개발하여 의류용 신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 소재의 변화는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다양한 양면성을 가진 하이브리드 현상으로 진전했으며, 하이테크 소재의 경향은 디자인의 한계성을 인식하지 않고 다양한 디자이너의 영감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1990년대 하이테크 소재를 연구한 결과, 네 가지의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이테크 소재의 특징은 물성 변형을 통해 재창조된 하이테크, 후가공에 의한 하이테크 소재, 신섬유의 개발로 이룩한 신소재 개념, 낯익은 개념의 하이테크를 포함한 것이며, 이는 라이프스타일의 추구 성향을 미리 예측하고 반영한 결과이다.

90년대에 와서 일상화, 보편화된 하이테크 소재는 기능적인 측면은 기본이며 인간의 감성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다양성이 함께 결부되어 소재에 대한 선입관을 파괴하고 있고, 독창적인 패션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위한 창조적 발상의 근원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실루엣이나 어떠한 스타일을 운운하기보다는 어느 누가 새로운 소재를 복식미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창의적인 스타일 표현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에는 실루엣을 주조로 한 디자인보다는 소재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 주류로 확산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60년대 활동한 디자이너들의 웨어러블 아트(wearable art)의 시도는 하이테크 소재의 다양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wearable technology)’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80년대 이후 빠르게 급성장한

신소재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스타일을 창출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착장자에게도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게 하였다. 즉 과학의 진보로 탄생한 신소재는 패션 디자이너들의 예술적 감성을 병행한 패션 디자인 향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신소재의 응용은 패션 디자인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탈피, 새로운 소재 창조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현대인에게 있어 패션 디자인 소재는 한시대의 패션 스타일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접수: 2004년 9월 3일)

【참 고 문 헌】

- 강현영 (1999).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소재 동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석봉 (2001). 「소재를 알면 디자인이 보인다」, 섬유기술사
- 양혜정 (1999). “20세기 패션에 표현된 퓨처리즘과 그 응용”,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엽혜정 (1998).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텍스타일의 경향과 특징에 관한 연구”, 복식, 41권
- 이경희 (2003). “여성 패션 트렌드 분석을 통한 감성 지표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효진 (1997). “현대 패션 디자인 소재에 표현된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2권
- 임은안 (2000). “현대 스포츠패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미 (1996).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경희 (1999). “Stretch Aesthetics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복식, 46권
- Braddock, Sarah E. & O'Mahony, Marie (1998). *Techno Textiles: Revolutionary Fabrics for Fashion and Design*, London: Thames & Hudson
- Buxbaum, Gerda, ed.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Prestel
- Cawthorne, Nigel, et. al. (1998). *Key Moments in Fashion: The Evolution of Style*, London: Hamlyn
- Foster, Linda (2000). “Going techno”, *Textile View*, no.49
- Handley, Susannah (1999). *Nylon: The Manmade Fashion Revolution*, London: Bloomsbury
- <http://www.fashionm.com>
- <http://www.firstview.com>
- <http://www.samsungdesign.net>

A Study on Feature & Trend of High-tech Fabrics on Contemporary Fashion - Focused on the 1990s -

Kookmin Univ., Dept. of Fusion Design, Doctoral Course, **Park, Eun Kyung**
Kookmin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Professor, **Lee, Jae Jung**

The prominent fashion trend of the 1990's is expressed of hybrid phenomenon with the concept of break down in genre and the materials with various nature are expressed as different forms with new physical properties under the concept of fusion. High-tech fabrics, defined as new fabrics, is rapidly progressed and can show the peculiar quality of texture like high-quality touch, high-sensitivity and high-functional feature. It is permanent and almost as light as the second skin and has great excellence in expressing various surface texture and organic effects. The trend of high-tech fabrics in 1990's has been developed as various inspirations of designers not recognizing the limit of design.

As the result of analysing the concept of contemporary fashion using high-tech fabrics in the 1990s, there are four individual features as follows; transformation of the original nature through synthesizing, new fabric as development, new finishing technology, the concept of non-woven high-tech. The trend of High tech fabrics is recognized as wearable technology as well as the popularity of new basic textiles. These days, being related closer and closer to the lifestyle of the human, it expresses various textures and quality touch, improves functional features.

Key words : high-tech fabric, techno style, synthetic, new fabric, 1990's fashion trend